

同時代 學校建築의 디자인 傾向에 관한 研究 -1980년대 후반이후 학교건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sign Trends of the Contemporary School Architecture -Focused on School Buildings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이 화 룡*

Lee, Hwa-Ryong

Abstract

An architectural practice cannot help involving a social art as its own concept. Especially school buildings are subjected to the influence of not only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 national curriculum, but also the sociocultural context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temporary trends of school architecture and give new inspiration to the school design practice. After it establishes the 'contemporary' school architecture as school buildings built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to the present time, this paper classifies them into 4 categories : popularist trend, traditional and regional tendency, revival of classicism and the pursuit of art for art's sake.

키워드 : 동시대 학교건축 디자인, 사회문화적 문맥, 대중주의적 경향, 전통성과 지역성 강조, 고전주의의 부활, 예술적 자율성 추구

Keywords : contemporary school design, sociocultural context, popularist trend, traditional and regional tendency, revival of classicism, the pursuit of art for art's sak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어떠한 건축적 실천도 건축 그 자체의 개념에서 사회적 예술임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 디자인과 구축에 있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건축은 그 특성상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이념과 내용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화적 문맥에 어우러져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건축은 최근까지 공급자

위주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의 강조로 인하여 그 모습이 일률적인 직육면체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고 또한, 획일적 공간구성의 학생 수용 시설로 축조되어 학교건축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자연히 축소 혹은 배제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세기 학생들이 19세기 교사들에 의해 18세기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¹⁾는 말이 의미하듯 학교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모습

* 정희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건축사

1) 김진엽, 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대학 디자인교육, 산업디자인, vol 166, 1999.

이나 교정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학교건축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시대 학교건축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그 건축적 경향을 논함으로써 학교건축 설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담론의 장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 내용과 범위

학교건축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순히 건축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과정과 내용의 변화,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적 요구의 변화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건축의 디자인은 그 자율 체계를 가지면서도 이러한 변화요인들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진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학교건축 변화에 미치는 많은 요소 중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연관 관계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시대에 대한 정의를 설정한 후, 그 사회·문화적 변화의 동태와 이러한 변화가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정보화, 다양화, 다원화로 규정되는 동시대 사회·문화적 경향이 학교건축에 미친 영향과 그 건축적 실천을 분석하고 이를 몇 가지 건축적 경향으로 분류하여 탐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건축의 역사적 고찰이라기 보다는 동시대의 학교건축의 실천에 대한 현상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이의 논의 구조는 시대적 구분이나 사건 위주의 서술보다는 동시대 학교건축과 상호연관을 가지는 요소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여기서 향 후 방향을 찾아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시간적 범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로 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초·중등학교건축으로 정하며 그 변화의 범위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학교건축의 설계 경향으로 한정한다.

2.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

2.1 동시대(contemporary)의 정의

건축사적 특히 우리나라 건축사적 구분에 있어

근·현대를 구분하기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모던, 포스트모던 등의 시대 구분으로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양태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건축의 발전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현재 여기서 (now and here)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동시대의 학교건축에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건축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시기를 1980년대 후반, 1986년 전후로 가정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넓게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개최되어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발을 들여놓았고, 건축계에서도 80년대 중반 이후 건축이 질적·양적으로 증가되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건축정보에 의해 우리나라도 소위 새로운 건축 경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한 일상 건축에서도 공모에 의해 설계자가 선정되어, 콘크리트 상자나 기능주의적 건축에 무감각해진 일반대중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기 시작하였고, 도시 경관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교건축 역시 60년대 이후부터 사용하였던 표준설계도를 스스로 폐기하고 민간 건축가의 참여에 의해 더욱 자유로운 학교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이 시점에는 교육현장의 의식있는 교사들에 의해 시행되었던 열린 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육 내용과 학습방법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80년대 후반에는 초등학생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학교시설 정책이 양적 확충보다는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80년대 후반은 교육정책과 교육내용이 급격히 변화한 시기이며, 학교의 양적 확충보다는 학교건축의 질적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시설사업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설계되어진 학교들을 동시대 학교건축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건축설계 경향을 분석한다.

2.2 사회·문화적 변화

1)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198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또 다른 격변의 시

대를 경험한다.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함께 자연스럽게 서구적 보편주의 이념과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자연스럽게 생활과 의식의 일부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두 가지의 뚜렷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며, 그 하나는 국제정치와 경제의 영향에 따른 국제화·세계화 추세이고, 다른 하나는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래이다.

후기산업사회는 대량 상품 생산을 위한 표준화된 방식, 대규모의 생산, 효율적인 집중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이며, 다니엘 벨(D. Bell)은 이를 공업화, 대중화, 정보화 사회로 요약하고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이념의 변화

우리나라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며 1990년대부터 문학, 철학, 사회학, 건축을 포함한 예술 분야에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 역시 시대의 산물이며 그 시대상을 반영하여 교육의 이념과 방향이 정립되고 목표가 설정되며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구성된다. 따라서 교육학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교육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첫째, 교육은 학생들에게 특정의 가치나 순수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존재로써 지식과 신념 그리고 가치체계를 창조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셋째, 교육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능력 및 전통의 재창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유와 평등과 민주적 가치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창의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조이다.²⁾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교육 이념은 다양한 학습과정의 강조, 다양한 선택적 학습양식과 상호작용적 교수 매체 및 교수 방법, 개방적 수업체제, 학습자의 독특한 지적 학습양식의 인정과 그에 알맞은 학습환경의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

니즘의 철학적 배경 - 탈중심성, 다원성, 상대성, 지역성 등 - 과 맥을 같이하며 학교건축에서는 다양한 교실 구성, 창의력 교육을 위한 환경, 학습자의 다양화를 위한 학교, 탈학교³⁾적 상황에 대비한 학교 시설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

3) 후기산업사회와 건축 경향

1970년대 이후 서구 건축계를 풍미했던 포스트모던 건축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은 1980년대이며, 80년대 중반 이후 일부 도시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의 역사성, 대중성, 다의성, 지역성을 표방하며 새로운 건축 경향으로 출현하였다. 하지만, 서구 포스트모던 건축이 20세기 초에 형성된 근대건축을 비판하며 그것을 딛고 일어난 건축 경향이었던다면, 한국의 포스트모던 건축은 단지 새로운 형식의 건축의 차원에서 서구 현대 건축을 피상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외국 건축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도시에 세워진 건물들은 다양한 설계 디자인 경향을 보인다. 구미 각국에서 유행하는 신헌리주의, 신근대주의, 하이테크, 해체주의 등의 경향을 보이는 건축이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을 바꾸고 있다⁴⁾.

이러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서구의 여러 건축 사조 혹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구 현대 건축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건축을 시도하며 건축의 근본정신과 공간에 주목한 건축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건축도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건축 설계 경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다음 3장과 4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추적한다.

3. 다원화 사회에서의 학교건축 변화

2) 윤종건,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행성과 학교 경영, 원미사, 1998, pp. 293-322.

3) OECD, What Schools for the Future (Paris : OECD, 2001), 77-98.

4)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우리 건축 100년, 현암사, 2002, pp. 299-300.

동시대의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요구는 정규(mainstream) 교육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변부에 해당되던 특수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등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의 변화는 기존 학교체제의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교 운영 체계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학교건축의 범위 역시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공간 조성에서 넘어 생활공간 조성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3.1 특수교육과 학교건축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실현이 최대 과제라는 점이다. 즉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일반학급 배치하고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공동 지원체제 구축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교육요구와 능력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 못지않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교실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학교건축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교육적 관심은 신축되어지는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1층 출입구 근처에 배치하도록 하고, 교내

보도와 접근로의 통행 적절성, 시각장애인의 유도를 위한 경고시설, 주차구역의 설정과 안전 통로 확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을 위한 적정한 화장실 및 위생기구 구비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고려가 초·중등학교건축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고, 학교 설계에서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보편화되었다.

3.2 평생교육에 따른 학교건축의 변화

현대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직업세계의 구조가 전문화, 세분화 되고 일생동안 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을 여러 가지 동시에 갖는 시대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생애 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증대 등의 사회적 변화는 고학력화 추세의 진전, 평등 교육관의 확산, 그리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였다.



그림 2. 평생교육의 필요에 따른 학교건축의 변화

이러한 평생교육의 사회적 요구는 학교건축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장으로의 부가된 기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신축되어지는 학교건축에서 예전에 권장시설이었던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관, 강당, 다목적실, 정보도서관 등이 이제는 필수 시설로 바뀌게 하였다. 또한, 지역학교(communitry school), 학교시설 복합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학교 모습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3.3 다양한 형태의 학교건축 출현

직업교육은 정규 직업교육 체제 내에서 개인들이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업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하며, 국가·사회적으로도 직업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림 1. 특수교육과 학교건축의 변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추진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단위의 직업교육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영재 교육과 특수목적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발전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건축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안학교의 경우 자유로운 교육과정의 운영만큼이나 다양하게 학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정규 학교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실례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이우학교(〈그림 3〉참조)는 생태건축을 기본으로 하는 대안학교로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환경에 거스르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재활용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1.8m×8.4m 모듈의 경량철골구조로 무주공간을 이루는 구조체를 입면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외장재로 적삼목을 쓰고 계단이나 데크 등에 부분적으로 목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이우학교는 자유로운 교육과정운영을 표방하는 대안학교답게 새로운 건축어휘와 재료 사용으로 그 자유분방함을 표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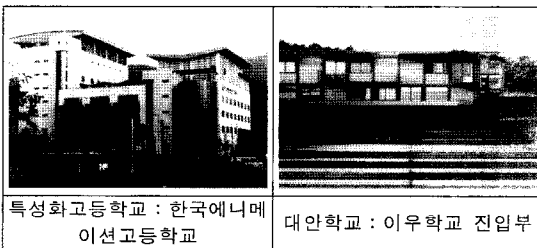


그림 3. 다양한 유형의 학교건축의 출현

4. 동시대 학교건축의 설계 경향

학교건축의 설계 경향을 논하기 위해, 아직 건축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은 모더니즘 이후의 건축경향을 논거로 삼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학교건축은 그 시대적 산물이며 그 시대의 중요 흐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건축적 경향은

어떤 정립된 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실체라는 점에서 최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학교건축을 그 시대의 주요 건축 흐름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판단한다. 본 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학교건축의 디자인 변화를 대중주의적 경향, 전통성과 지역성의 강조, 고전주의의 부활, 예술적 자율성의 추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1 대중주의적 경향

1980년 이후 학교건축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은 대중주의 건축의 영향이라 하겠다. 20세기 후반 이후 현대 산업사회의 문화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즉 이전의 대중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통속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일체의 산물을 가리키는 부정적 의미였으나 이제 대중문화는 비난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 되었다. 대중성은 발굴하고 존중해야 할 건강함이고, 대중문화적 취향은 예전처럼 의식화의 과정을 거쳐 민중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치 있는 문화적 행위로서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⁵⁾.

이와 같이 대중문화가 그 정당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건축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과격적 일탈이 시도되고 있다. 지성적 해석에 기초한 엘리트 모더니즘 건축을 어려워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제시된 새로운 건축적 가치는 '즉흥적 감성'이라는 심리적 가치였다. 건축도 이제는 한 사회 단위를 구성하는 다수의 대중이 쉽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밝은 원색과 재미있는 형태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⁶⁾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건축 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 세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건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형과 색상 등으로 기존의 학교 모습들을 변하게 하고 있다.

학교건축에서 나타나는 첫번째 대중주의적 경향은 다양한 기하형식의 도입이다.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5) 박명진외, 문화, 일상, 대중 : 문화에 대한 8개 탐구, 한나래, 2002, p.12.

6)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 예경, 2001, p.145.

구성된 직사각형 평면의 조합이었던 학교 외관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사선과 곡선, 유선 등의 기하형식이 입면에 적용된 점이다, 원통형, 육면체, 다면체 등 몇 개의 기하형태들이 유기적으로 분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납작해져 있던 학교 입면을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조형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아래 <그림 4>의 셋별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매스(mass) 전체를 원통 혹은 탑형으로 학교시설에 적용시켜 기존의 직육면체의 학교모습에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 모습의 획일적이고 동일한 반복에서 오는 단조로움과 삭막함을 벗어나고 관습적 기준에서 일탈하려는 형태적 포장 노력은 특히 신축되어지는 초등학교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대중들에게 학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호적 측면 이외에도 사용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좀 더 친숙해지려는 건축적 제스처로 이해될 수 있다.

기하조작에 의한 심미적 노력과는 달리 또 다른 형태 포장은 색채의 두드러짐이다(<그림 4>의 금산초, 미호초 참조). 엄숙한 무채색과 극기적인 자연색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학교외피의 원색 사용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외벽단열시스템의 사용에서 오는 자유로운 색채구현, 그리고 아동들의 색감에 눈높이로 다가서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화려한 색채 사용은 아동들의 감각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유발하여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색채심리학적 근거에서이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파사드(facade)에 활용한 학교들은 주변지역의 침침하고 음울한 맥락을 보다 밝고 활기차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색이 가지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친숙한 일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색상 결정에 있어 좀 더 건축적인 진지한 고민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다수의 대중에게 쉽게 즐거움을 주고자 한 건축적 노력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불쾌감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주의적 경향의 학교 건축은 서구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잉태된 외피 복사형 건축이라는 비판과 함께 상업주의 건축의 패션적

경향에 편승한 형태 유희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학교건축에서의 대중주의 경향은 건물 사용자의 감성에 부응하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직사각형의 학교를 변모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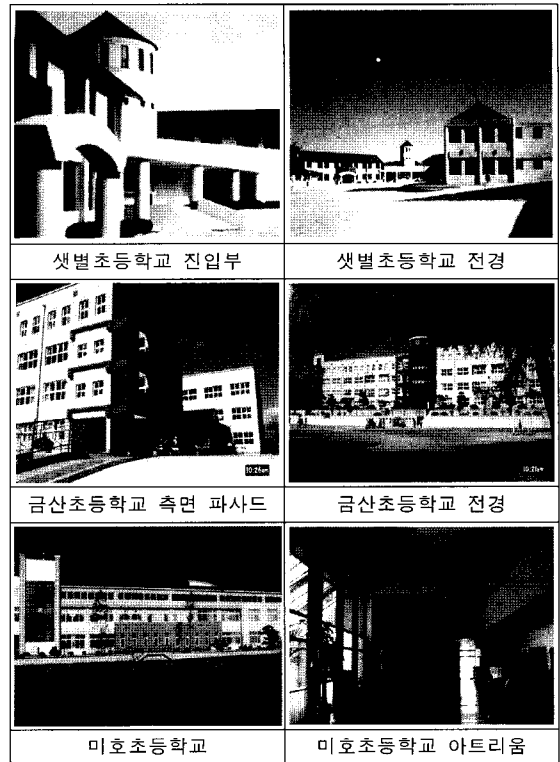


그림 4. 대중주의적 경향 사례

4.2 전통요소와 지역성의 강조

다양한 형태 모색과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현상은 전통건축의 어휘 도입과 지역성의 강조이다. 첫 번째 사례는 전통건축의 공간개념과 조형미를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이를 학교건축에 담으려는 노력이다. <그림 5>의 전북 전통문화고등학교는 전통건축의 마당 개념을 활용, 튼 ㅁ자로 배치하여 공간의 자연스런 흐름을 생성하고 있으며, 전통 대청마루와 루(樓)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확장 및 수렴을 학교 건축 어휘로 재해석하고 있다. 전통의 현대적 해석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처럼 전통건축의 형태적 모티브를 학교건축의 레퍼토리(repertoire)로 차용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차용된 전통형태 어휘가 단순하게 요소적인 소품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건물 전체와 잘 조화되어야 하며, 또한 전통건축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대칭, 공간의 역동성과 울동 등의 공간개념들은 아직 학교건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즉 전통의 것이 무조건 좋다는 골동품적 취향이나 옛것의 후광의 키지적 차용보다는 전통의 보편성을 현재의 모습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 다른 경향은 지역성에 대한 고려이다. 지역성은 단순히 지방에서 생성된 토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단위 국가의 뿌리 깊은 문화를 의미하며 지역성의 참뜻은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외래의 영향을 적절히 받아들여 지역문화의 활기찬 형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건축에서의 지역성 고려는 소극적이거나 태안에 위치한 <그림 5>의 남면초/서남중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농어촌학교현대화시범학교로서 설계·계획 단계부터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지역사회 학교(community school)이다.

모임지붕 형태의 촌락 이미지와 등대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전망대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학교 정면에 위치하여 서해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는 향토자료실을 겸하고 있어 지역 문화활동의 중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맥



그림 5. 전통성과 지역성 강조 사례

락을 포용하려는 건축적 의도는 외부 매스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까지 연속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이 학교를 지역사회와의 친숙한 장소(place)로 만들고 있다.

4.3 근대초기의 학교형태의 부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이어지는 일부 학교건축은 다양한 형태, 정체성 찾기, 그리고 비판적 지역성 등을 지향하면서 콘크리트 상자나 기능위주의 학교모습을 변모시키고 있다. 또 다른 경향은 우리나라 초기 학교건축에서 나타났던 고전주의적 건축 형태의 부활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도심 재개발에 따라 강남 혹은 강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혜화동에서 강동구 둔촌동으로 이전한 보성중·고등학교(<그림 6> 참조)의 경우 80년여 년의 전통을 지닌 명문 사학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종각을 새 교사로 옮겼고 기존의 중·고교 본관 건물 중앙부를 재현하여 그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구(舊)교사에 있던 한옥건물을 본관 중정에 이전 개축하여 전통적 공간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다. 건물 배치에서도 예전 고전주의적 학교건축의 형식인 대청구조를 답습하고 있으며 삼각 패디먼트(pediment)를 가지는 3단 기법을 출입구에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림 6. 고전주의의 부활 경향 사례

7) 본 사진은 산업도서출판공사, 교육시설1(1996) 자료임

이러한 고전주의적 부활은 경기여자고등학교(<그림 6> 참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외피 구성에 있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연륜이 더해가는 마감재인 변색벽돌과 오지기와를 사용하여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응변하고 있다. 또 전체적인 형태와 재료의 사용을 단순하게 하고 교사동과 체육관 지붕 역시 박공지붕으로 통일하여 건물 전체가 안정되고 조화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사동 배치 형식인 ㄷ자형 공간 구성을 조성하여 교사동 사이에는 중정을 두었으며 대칭적 정면 구성과 중앙과 양 측면 매스의 상부에 패디먼트를 두어 고전주의적 학교건축이 지니는 안정되고 학문적(academic)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4.4 예술적 자율성 추구

우리의 현대 건축들이 대개 그러하듯 학교건축의 보편성 - 국제성, 추상, 축조성, 기계문명, 공간, 수용 등의 어휘로 표현되는 - 은 경제 및 기능 우선 논리에 밀려 대부분의 학교는 직사각형의 일자형 형태로 건축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일제 식 교육방식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쉬우며, 다수를 위한 다수의 학교를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내적 보수성 - 교육은 실험적이어서는 곤란하며 적어도 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 은 학교건축의 도전이나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두텁게 형성된 학교건축의 기능 위주의 형태적 보편에 저항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과 탐구는 일부 작가주의적 건축가들에 의해 발표되어졌다. 그 사례로는 2005년도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천안 와촌초등학교(<그림 7> 참조)를 들 수 있다. 이 학교의 북측면은 도로에 면하여 가로공원을 만들고 건물 외벽 밖에 별도의 벽체를 설치하여 도로 소음과 건너편 고층아파트로부터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으며, 작은 창과 커튼월, 테크, 슈퍼그래픽 등을 연출한 절제된 입면 구성은 아름다운 회화적 파사드를 도시공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학교인 밀알학교(<그림 7> 참조)에서도 건축가의 예술적 의도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1층에 식당, 강당, 미술관 등을

에워싸고 있는 아트리움이다. 이 아트리움은 모든 교실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실에서 연결되는 복도와 경사로들이 이곳을 향하여 열려져 밝은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역동적 공간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적인 관계의 중심체로서의 기능성과 형태적 회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트리움을 덮고 있는 천창 시스템은 종이창처럼 자연광을 부드럽게 걸러주어 내부의 어린이들에게 더욱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건축 세계를 구성해내는 건축적 매개들을 이용하여 심미성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예술적 애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가의 의도와는 달리 사용자 느끼는 특히 장애인들의 심리적 문제, 동선 처리, 소음, 안전 등의 기능적 수단 문제에서 비롯될 때 학교건축에서의 회화성, 공예성, 조형성 등의 예술적 목적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이격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건축이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수성에만 의존하여 형태적 기능과 경제성의 요구에만 매달린다면 건축이 가져야 할 예술적 가치나 문화적 자율성에서 점점 멀어지므로 이 또한 경계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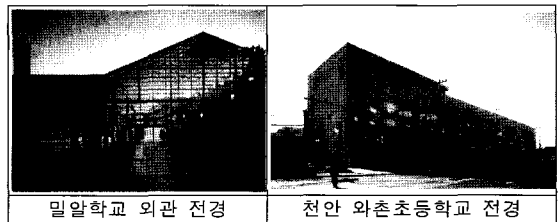


그림 7. 예술의 자율성 추구 사례

5. 결론

본 연구는 동시대 학교건축을 1980년대 이후로 설정하고 그 이후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학교모습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현상적 탐구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학교건축의 주요한 변화 요인은 학교를 단순히 학생들의 수용시설이 아니라 교육적, 사회·문화적 요구를 담은 그릇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학습의 다양한 행태를 공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건축 형태 역시 침묵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학교건축 디자인의 변화를 대중주의적 경향, 전통성과 지역성의 강조, 고전주의의 부활, 예술적 자율성의 추구 등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물론 이러한 건축적 경향은 어떤 정립된 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실체라는 점에서 분석의 틀이 다소 미흡하고 피상적인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보완은 다음 연구에 미루고자 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더욱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학교건축에 대한 연구가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 문화적 관점으로 학교건축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윤종건,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 경영, 원미사, 1998
2. OECD, What Schools for the Future, Paris : OECD, 2001
3. 신영훈, 이상해, 김도경, 우리 건축 100년, 현암사, 2002
4. 박명진외, 문화, 일상, 대중 : 문화에 대한 8개 탐구, 한나래, 2002
5.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 예경, 2001
6. 교육시설1, 산업도서출판공사, 1996